**※ 프로그램 명 :** 천방저축

**※ 사용자 :** 유아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 프로그램 주 기능** **:** 자녀의 소비 및 저축 습관 구축

- 생활비 달력을 적용한 가계부 기능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축 및 소비 습관 관리

- 소비, 기부, 저축 (60:10:30) 개념을 스스로 익힐 수 있다.

- 자녀에게 동기 부여를 위한 부모의 목표 제공

- 가시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쉬운 관리 습관 구축

- 자녀가 필요한 물건에 대한 필요 이유를 직접 기술 ( 근거 자료 제시 )

- 부모와 필요한 물건에 대한 논의와 상담

- 필요한 물건을 부모가 제공하기 위한 자녀의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수립

- 부모의 칭찬과 보상에 의한 자녀의 성취감 증가

- 가계부 및 일기 기능을 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유대감 형성 및 자기 관리 습관 구축

**※ 근거 자료**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 교수는 20년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1000여명의성장과정을 각종 설문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연구 결과 백만장자는 상속이나 운 ,학력 등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 중 80%는 중산층과 노동자 출신이었다.

아이들에게 돈은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과도 같은 것처럼 느껴진다. 경제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이 요정의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다. 노동의 의미를 가르치고,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투자의 효용을 설명한다 한들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를 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첫걸음이다. 즉,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적 상황을 미리 만들어주어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마시멜로는 바로 용돈이다. 용돈을 받으면 소비를 위한 예산을 미리 세워볼 수 있고, 저축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아이가 세 살 정도 되면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종류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물건을 살 때 자기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단계에 이르고, 숫자를 알면서는 거스름돈도 이해한다. 아이가 지폐와 동전의 가치를 구별하고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단계 라면 용돈 지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평균적으로 만 4~5세 정도의 나이. 이때부터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 500원이나 1000원 정도의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보자. 이 단계의 아이들은 돈을 잘 다루지 못한다. 용돈기입장을 작성하거나 저축을 해보는 등 본격적인 용돈관리 교육을 시키기에는 이른 나이다. 그래도 용돈을 주는 것은 돈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원칙과 원리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아이에게 용돈을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작은상자에 돈을 보관하게 하면 자신의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 또한, 돈이란 모으면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한두 달 용돈을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모이고 아이들 감각으로 꽤 비싼 물건도 살 수 있다. 셋째는 돈이란 쓰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용돈이 5000원이 있다면 4000원이나 3000원짜리 물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용돈 교육은 반드시 아이와 대화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 느닷없이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용돈 범위 내에서 생활하라고 하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돈을 빠듯하게 줘야 한다는 것. 이걸 사면 저걸 사지 못하고, 저걸 사면이걸 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훈련이야말로 부자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용돈이 너무 작으면 이런 종합적인 관리는 경험할 수 없다.  
  
**\*마시멜로 이야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한 네 살배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주며 15분 간 마시멜로 과자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한 개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한 채 마시멜로를 먹어치웠고,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상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14년 후에 밝혀졌다. 당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성장해 있었다. 반면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움에 말려들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가혹할 수도 있는 15분이라는 시간을 고통으로 느끼지 말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즐거움으로 기다리라는 것.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혹들을 고통과 쓰디쓴 인내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성공은 고통과 시련의 대가가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의 대가’다.